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9월 20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렘1:4-10

누구나 눈이 열려서 원죄를 알게 되면 답이 납니다.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날부터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믿음의 내용으로만 알았던 생각이 달라집니다. 누림의 대상으로, 전쟁을 위한 무기로, 정복의 약속으로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모르면 혼자서 행복할 수도 있고, 괜히 혼자서 우울하게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죄를 몰라서 참된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원죄도 알고 그리고 원인도 하나 답도 하나라는 명언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원죄를 정복하고 답으로 원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1.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 누구에게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비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만일 평생을 갈 언약의 말씀이 되면 이제 작품 인생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항상 마음에 살아 있을 것이고 기도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2) 당연히 평생의 비밀이 되고 평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런 증거를 보아 가면서 더 깊이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망대가 되어지고 문제가 무너지고 문제가 역전되어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문제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3)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다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4) 무슨 다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세요 말씀을 맡은 자의 비밀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역전하기도 하고 한 개인과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절대 권세가 되었습니다.
5)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는 자는 살고 그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습니다. 나라도 시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에 담아 두셨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도 있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할 수도 있고 건설하고 심을 수도 있습니다.
6)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것은 예레미야의 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 안에 살 길이 있었고 심판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을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7)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7:16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

니 ….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말에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받으면 끝납니다. 그 말씀 안에 파괴도 있고 파멸도 있고 건설도 있고 심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의 말씀을 받으면 평생이 끝나는 것이고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말씀의 권세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2. 눈이 열려야 한다

1) 말씀을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피하는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길을 말하고 돌아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왕과 관리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2) 자기는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애를 태우며 말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으니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3)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으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마5:4 두 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구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애통입니다

4) 어떤 애통이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애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런 느낌이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길입니다

5) 말씀을 받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늘 듣고 있던 꼭 같은 말이 다르게 보이고, 해야 할 이유도, 어떻게 할 방법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도 늘 듣던 것인데도 생각과 느낌과 확신이 달라집니다

6) 무엇보다도 그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달라지고 확신이 들고 가능해 보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고 지속하고 싶고 줄어들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될 때까지 가야 한다는 결론과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게 늘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지속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넘어 도전을 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 말씀을 받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랬습니다.

7) 그리하여 그들은 받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낙심하지 않았고 막히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취되었고 세상은 그때에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말씀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